



2019 정읍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팝페라공연

정읍 동해

• 2019. 9. 30 Mon. 7:00 pm

정읍사예술회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JEOLLABUKDO JEONGUP OFFICE OF EDUCATION

Popera

팝페라 소개

'팝(pop)'과 '오페라(opera)'의 합성어로, 오페라를 팝처럼 부르거나 팝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음악스타일 또는 대중화한 오페라를 가리킨다. 팝페라는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크로스오버 음악 붐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형태지만, 클래식과 오페라의 염격함과 답답함 그리고 보수적인 틀을 벗어던지고 자유분방하게 노래한다는 점이 대중에게 크게 부각되면서 인기를 얻었다. 영국의 뮤지컬배우 출신의 소프라노가수 '사라 브라이트만', 이탈리아 출신의 맹인 성악가이자 팝페라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다국적그룹 '일 디보', 대한민국의 '키메라'와 '임형주' 등이 대표적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팝페라가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팝페라(Popera: Operatic Pop)'라는 신조어는 지난 1985년 10월 대한민국 출신의 팝페라가수 겸 소프라노인 키메라가 자신의 음반발매와 관련해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탄생되어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아닌 대한민국이 '팝페라' 장르의 종주국임이 지난 2015년 5월 당시 영국의 유명 클래식음악지인 'BBC뮤직매거진'에 게재된 팝페라 탄생 30주년 특집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팝페라'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표적인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기는 이후 2016년 종편방송사 'JTBC'의 오디션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열풍의 시발점 및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과 함께 '포르테 디 콰트로'와 '포레스텔라', '듀에토' 같은 '크로스오버' 음악계의 스타를 탄생시켰다.

프로그램

1. 디즈니메들리 / 혼성합창
2. 동행 / 남성 4중창
3. Think of me / 여자솔로
4. Hero / 여성5중창
5. A mazinggrace / 남성 5중창
6. 오늘 같은밤 / 혼성 6중창
7. 지금 이순간 / 남성솔로
8. Happy thing / 여성4중창
9. Stars / 남성솔로
10. 양희은 메들리 / 혼성합창



팝페라공연
종래